

머리털이 쭈뼛쭈뼛~그 느낌을 즐긴다 ‘짜릿한 맛’ 안기는 고공 관광 명소들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요즘 가장 ‘핫’한 국내 관광지 3대 명물을 꼽으라면 나올 법한 대답이다. 이런 시설이 설치된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기를 끄는 공통된 이유는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면서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슴 출렁이게 하는 대표적인 고공 관광 명소들을 찾아가 봤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해상케이블카 여수를 더 특별한 곳으로



1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 야경 2 돌산공원 바닥에 비친 '함께 걸어요 여수밤바다' 조명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전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랫말처럼 봄날 여수는 무척 매력적이다. 따스한 햇빛 아래 청포도처럼 싱그러운 바다와 개나리, 진달래처럼 밝고 화사한 항구도시의 풍경은 못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게 한다. 봄마다 볼 빨간 연인들과 부드러운 바람에 가슴 들뜬 사람들은 여수로, 여수로 향한다. 이런 여수를 좀 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해상케이블카다. 돌산과 자산공원을 잇는 길이 1.5km의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는 여수를 더 낭만적인 여행지로 만든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해 매년 200여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낭만과 스릴의 해상케이블카

꽃샘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한 4월 초순 해상케이블카 출발 지인 돌산의 '놀이정류장'. 흰 구름 몽실몽실한 하늘을 배경으로 캐빈들이 줄에 매달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탑승장에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섰다. 한 줄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 다른 한 줄은 일

반 캐빈 대기줄이다. 총 50대 중 8인승 일반 캐빈이 40대, 5인승 크리스털 캐빈은 10대가 마련돼 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일반 캐빈 4대에 은색 크리스털 캐빈 1대꼴로 배치됐다. 크리스털 캐빈에 오르자 이내 문이 닫히고 허공을 향해 서서히 나아간다. 캐빈이 탑승동을 나선 순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다. 발아래로는 벚꽃잎이 나뭇가지와 땅을 연분홍빛으로 채색한 돌산의 비탈이 내려다보인다. 땅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더니 순간 초록 빛깔 바다가 사각형 투명 바닥을 한가득 채운다. 수면과의 거리는 약 90m. 머리가 쭈뼛한다.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캐빈은 대롱거리고, 조그만 창문을 통해 새어든 바람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공포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두려움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항도(港都) 여수의 낭만적인 풍경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왼쪽으로는 고소동 천사벽화골목의 집들이 양증맞은 자태를 뽐내고 노랑, 주황, 빨강 지붕을 얹은 예쁜 집들은 그 자체가 한 폭의 풍경화가 된다. 새빨간 히멜등대도 조그맣게 내려다보인다. 오른쪽에



3



3 화사한 지붕을 이고 있는 가옥 풍경
4 해안정류장 인근 전망대에 걸린 소원판
5 크리스털 캐빈에서 여수 경치를 즐기는 관광객들

는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수많은 케이블이 주탑에 연결된 거북선대교가 조형미를 과시한다. 거북선대교 뒤편으로는 오동도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다. 뒤돌아보니 여수항에는 배들이 평온하게 정박해 있다. 돌산대교 아래로는 배들이 지나며 초록빛 바다에 기다란 흰색 포말을 그리고 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다. 동승자들의 입에서는 탄성 섞인 말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여기 바닷길 좀 봐, 너무 예뻐!"

"저쪽 보봐, 집들이 너무 예뻐!"

크리스털 바닥에 함께 발을 모아 '인증샷'을 찍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경기도 고양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신미자(54) 씨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여수가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라며 "크리스털 캐빈은 스릴도 느낄 수 있어 타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다를 건너 후 자산공원을 넘어서자 다시 화사한 벚꽃과 핏빛 동백꽃의 정원이 펼쳐진다. 오동도와 인근 바다의 평화로운 풍광도 한눈에 들어온다.

약 13분간 바다 위를 날아 도착한 곳은 자산공원 '해안정류장'. 바깥으로 나서자 벚꽃이 활짝 핀 산책로가 이어지고, 산책로 끝에 있는 일출정에서는 오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

여수해상케이블카 이용요금

일반 캐빈 왕복 대인 1만3천원·소인 9천원, 편도 대인 1만원·소인 7천원

크리스털 캐빈 왕복 대인 2만원·소인 1만5천원

프리미엄 티켓(대기 시간 없이 바로 탑승하는 티켓) 캐빈 종류에 관계없이 1대당 15만원





인다. 일출정과 전망대 난간에는 '건강' '행복' '취직' '사랑' 등을 기원하는 하트 모양 소원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바람이 더 거세져 흔들림은 심해졌지만 벚꽃이 만개한 돌산, 평화로워 보이는 항구와 돌산대교는 여전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뽐낸다. 송진민 여수해상케이블카 상무는 "해상케이블카는 사계절 언제 이용해도 좋지만 여수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해 질 무렵이나 야경이 예쁜 밤에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는 일반 캐빈 30분, 크리스탈 캐빈은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바람이 심해져 그날 오후 들어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됐다. 겨울에는 강풍으로 통상 월 1~2차례 운행을 못 한다고 한

다. 다른 계절에도 바람이 세면 가끔 운행이 중단되곤 한다. 운행 상황은 여수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www.yeosucablecar.com)나 전화(☎ 061-664-7301)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여유로운 분위기의 여수 명소들

여수해상케이블카 정류장이나 주변에는 관광객이 가 볼 만한 장소가 많다. 자산공원 쪽 해양정류장 3층에는 '판타지월드 미디어아트 뮤지엄'이 있다. 여수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전시하는 곳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우선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하는 만화책 세상이 펼쳐진다. 이순신 장군의 삶과 활약을 그린 만화를 보고, 만화 속으로 들



어가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 해상케이블카, 윈드서핑 등을 주제로 한 트릭 아트를 만날 수 있다. 돌산대교, 하멜등대, 세계박람회장 등 여수의 화려한 야경도 볼 수 있다. 놀이정류장 옆 돌산공원은 산책하기 좋다. 돌산대교 준공 기념탑을 중심으로 동그렇게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여수항과 돌산대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매력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돌산공원에서 바다 건너다보이는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돌산대교, 거북선대교가 보이는 언덕마을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투 명령을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진남관부터 고소동 언덕을 거쳐 여수해양공원까지 거리가 1,004m라서 '천사'란 이름이 붙었다. 골목에서는 여수의 역사, 문화, 풍경, 이순신 장군, 이



곳 출신 허영만 화백의 '식객'과 '제7구단' 등 다양한 벽화를 보며 산책할 수 있다. 언덕 곳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가 들어서 있다. 천사벽화마을 인근에는 하멜박물관과 하멜등대가 있다.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은 1663~1666년 여수에 억류됐다가 일본으로 탈출했다. 박물관에는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생활 모습과 탈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다. 박물관 바깥에서는 노란색과 빨간색 툴립이 활짝 피고 풍차가 있는 이국적인 정원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바다 쪽으로 빨간색 하멜등대가 서 있다. 이곳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15분 정도를 걸어가면 오동도 입구가 나온다. 15분 정도를 더 가면 매일 밤 해상분수쇼와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지는 빅오, 스카이다워전망대, 아쿠아플라넷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이 있는 세계박람회장이 나온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돌산 남쪽 끝에 있는 향일암에서 다도해의 압도적인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해가 저물고 사위가 어둠 속에 묻히면 여수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돌산대교 옆 장군도, 여수항 등이 색색의 불빛을 내뿜으며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완성한다.

5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6 천사벽화마을의 전망 좋은 카페

1 해양정류장 인근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동도와 주변 바다 전경
2 세계박람회장
3 판타지월드 미디어아트 뮤지엄
4 하멜등대



2

스카이워크 도시 부산 푸른 바다 위를 걷다

부산에는 스릴을 만끽하며 시원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3개나 있다. 오륙도가 건너다보이는 이기대 해안, 신항 명소로 떠오른 송도해수욕장, 낭만적인 풍경의 청사포 해안이다.



- 1 부산 청사포에 있는 다릿돌 전망대
- 2 다릿돌 전망대에서 스릴을 즐기는 방문객들
- 3 다릿돌 전망대 표지판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 자리는 그동안 해운대와 광안리가 차지했다. 하지만 두 곳은 그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다. 매년 100만 명 이상씩의 방문객을 불러모은다는 스카이워크 명물들 때문이다.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구조물로, 경치가 좋다는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에는 이기대 해안, 송도해수욕장, 청사포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됐다. 스카이워크 순례 여행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할 정도가 된 것이다.

해운대 달맞이길과 송정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포구마을인 청사포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간다. 해안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안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바다를 향해 고개를 내민 다릿돌 전망대가 형체를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유선형의 구조물은 더 거대하고 육중해 보인다.

푸른 뱀의 전설 형상화한 '다릿돌 전망대'

다릿돌 전망대는 청사포에 전해지는 푸른 뱀의 전설을 형상화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매일 바다를 보며 그리워했다. 용왕은 푸른 뱀을 보내 여인을 데

려와 남편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전설 때문에 청사포는 원래 뱀을 뜻하는 '사'(巳) 자를 썼는데 지금은 '모래 사'(沙) 자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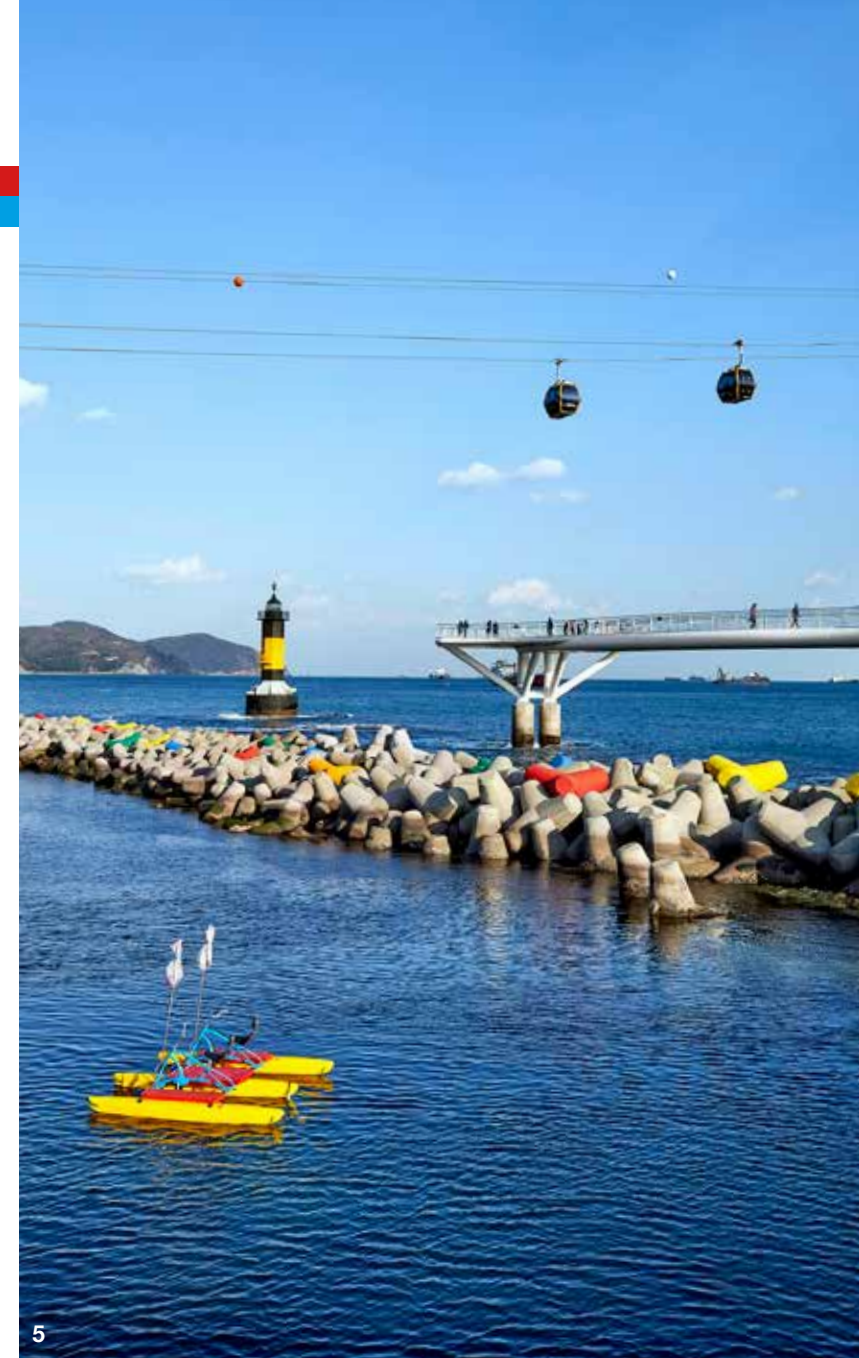
전망대는 길이가 72.5m에 달한다. 그만큼 바닷속 깊숙이 자리한다는 뜻이다. 기암이 수려한 해안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들어섰다. 뱀의 길쭉한 몸통에 해당하는 S자로 굽어진 폭 3m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이내 폭이 넓은 머리 부분에 도착한다. 중간과 왼쪽에는 투명 바닥 유리를, 오른쪽에는 철망이 깔렸다. 유리 바닥 귀퉁이에 서서 내려다보자 까마득한 아래에서는 사나운 파도가 포말을 일으키고 있다. 전망대에서 수면까지 거리는 20m에 달한다.

방문객 대부분은 미소를 머금고 조심조심 발을 디디며 스릴을 즐기지만 한쪽에서는 "여길 왜 오는 거야" "더는 못 가겠어" 등 겁 잔뜩 먹은 듯한 말소리도 들려온다.

전망대 끝에 서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전망대 난간 뒤편으로는 조그만 해상 등대가 하나 서있고, 육지부터 등대까지 암초 다섯 개가 징검다리처럼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전망대에 '다릿돌'이란 이름이



1



5

1 부산 송도해변의 곡선형 구름산책로 2 미포 철길 3 해바라기가 그려진 골목길
4 구름산책로 중간 거북섬의 조형물 5 송도해변의 케이블카와 구름산책로



2



3



4

불은 이유다. 전망대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오르면 푸른 뱀이 바다로 날아드는 듯한 전망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전망대 바로 뒤편에는 더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동해남부선 기차길이다. 송정역에서 구덕포, 청사포, 미포를 거쳐 미포 간널목에 이르는 4.8km의 철길이다. 철길 위쪽 비탈에는 갈매길이 나란하게 지나다. 연인들은 영화 '건축학개론' 속 장면처럼 수명이 다한 철로를 따라 걷고, 젊은이들은 철로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는다. 기차길을 따라가면 흰색과

빨간색 쌍둥이 등대가 마주 보고 있고, 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이 있는 청사포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곳 특산물인 잘 말린 미역을 늘어놓고 파는 주민들과 담벼락에 예쁜 그림이 그려진 골목길도 만날 수 있다.

'구름인파' 물려드는 구름산책로

부산 서구 송도해변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곡선형 해상산책로인 구름산책로가 있다. 2016년 설치돼 송도해변의 명물이 된 총 길이 365m의 스카이워크다. 지난해 210만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유연하게 굴곡을 그리는 산책로를 따라가면 초승달 같은 송도해변과 바닷속에서 돌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중간중간 투명 바닥 유리화 철망 사이로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이 들여다보인다. 산책로 중간에는 섬의 모양이 거북을 닮은 거북섬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한 어부가 그물에 상처 입은 여인을 정성스레 치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용왕의 딸이었다고 한다. 용왕의 딸은 사람이 되기 위해 천일기도를 올렸지만 마지막 날 바다 괴물의 방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용왕은 딸과 어부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어부를 거북

바위로 만들었다고 한다. 거북이 입을 썩 벌린 모습의 입구를 들어서면 송도해수욕장의 유래와 전국의 거북바위, 송도 거북섬 전설 등을 소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방문객은 거북 조각상과 거북 알의 자, 인어와 어부의 동상 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거북섬을 지나서도 산책로는 이어진다. 산책로 끝에 서면 노란색 등대 뒤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송도해변의 또 다른 명물은 해상케이블카다. 구름산책로 뒤편 송림공원에서 바다 건너 암남공원까지 1.62km를 잇는다. 편도 소요시간은 약 8분 30초. 8인승 케이블카 39기 중

- 1 오륙도 스카이워크
- 2 바다 위에 떠 있는 오륙도
- 3 해파랑길 시작 지점
- 4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들



13기는 바닥이 투명하다. 최고 86m 높이에서 하늘을 나는 스릴을 만끽하며 바다와 해안선을 볼 수 있다. 국내 최초 케이블카 뮤지엄 '송도 도펠마이어 월드', 아시아 최초 공중그네 '스카이스윙'도 있다.

부산의 세 번째 스카이워크는 이기대에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이곳의 옛 이름은 말안장을 뜻하는 '승두말'로, 깎아지른 듯한 높이 35m 절벽 위에는 말발굽 모양 투명 전망대가 바다를 향해 길이 15m로 돌출해 있다. 발아래 투명 유리를 통해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풍경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한다. 전망대에 서면 방패섬, 술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등 일명 '오륙도'가 내려다보인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절벽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해녀들이 청정해역에서 직접 채취했다는 전복, 해삼, 소라, 문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간이식당이 있다.

해녀들의 간이식당이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스카이워크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한 후 해안절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해풍을 맞으며 걸으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것 같다.

- 5 아슬아슬해 보이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 6 스카이워크 인근 해산물 간이식당



3

가슴 속까지 뒤흔든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원주 섬강과 삼산천 물길이 합류하는 간현관광지에는 바위 절벽이 이채로운 소금산이 있다. 최근 이곳이 전국 최고의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출렁다리 덕분이다. 소금산 출렁다리 산행을 직접 체험해 봤다.



출렁다리 열풍이 불고 있다. 파주 감악산과 마장호수, 통영 연화도~만지도, 청양 천장호, 여수 하화도, 강진 가우도 등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50개에 달한다. 통영 연화도~우도, 김천 부항댐, 순창 채계산, 예산 예당호, 대구 팔공산 등 설치 예정인 곳도 많다.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출렁다리의 인기가 치솟는다.

평일에도 등반대회 열린 듯 '인산인해'

지난 4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소금산 출렁다리로 가는 관문인 간현관광지 주차장에는 평일임에도 관광버스와 승용차

가 뽐뽐하게 들어차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10여 분 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겨우 빈 곳을 찾아 주차하고 산행에 나섰다. 출렁다리 쪽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찾을 필요도 없이 화사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을 뒤따르기만 하면 됐다. 산 아래까지 이어진 사람들의 행렬을 보니 마치 등반대회라도 열린 듯했다. '인산인해'란 말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 할까.

섬강을 가로지르는 간현교에 들어서면 현재 레일바이크만 오가는 철교 뒤로 오형제바위와 초록빛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한수를 돌아오니 섬강이 어디메뇨, 치악이 여기로다"라고 예찬한 바로 그 절경이다.



1 계곡 아래에서 바라본 소금산 출렁다리
2 출렁다리로 가는 행렬 3 철교를 지나는 풍경열차

다시 삼산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옥수수 동동주인 '출렁다리 출렁주'를 가득 쌓아놓은 식당이 방문객을 맞는다. 한쪽에선 이곳 특산 물인 버섯과 약단밤을 팔고 있다. 수수부꾸미, 고기만두 등을 안주 삼아 한 잔씩 들이켜는 이들도 있다.

등산로는 나무 계단 길과 흙길에 있는데 대부분 계단 길을 선택한다. 사람들을 따라 계단 길을 오른다. 계단이 설치된 곳은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꼭대기까지 울긋불긋한 빛깔이 길게 이어진다. 계단 길은 폭도 넓지 않아 앞사람 등을 보며 졸졸 따라가야 한다. 병목현상이 빚어져 오르다 멈추기를 반복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팔막한 비명...두려움 섞인 미소도

그렇게 30여 분을 올라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 양쪽은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무척 혼잡했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니 드디어 하늘색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폭 1.5m의 출렁다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와글와글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지상 100m 높이에 있는 암벽 봉우리 2개를 연결해 만들었다. 지난 1월 개통한 이 다리는 길이가 200m로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길이 207m)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출렁다리였지만 길이 220m의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올 3월 준공되면서 3위로 밀려났다. 물론 산악보도교 중에서는 가장 길다.

행렬을 따라 출렁다리에 발을 디더 본다. 길이가 200m라고 하지만 맞은편 봉우리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 보이지 않는다. 출렁다리는 정말로 출렁거린다. 상하좌우로 흔들리며 수차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자칫 튕겨 나가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

- 1 출렁다리를 건너는 관광객들
- 2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본 삼산천
- 3 원주레일파크에서 즐기는 레일바이킹
- 4 풍경열차가 출발하는 간현역



1



2



3

“간현관광지 인근의 원주레일파크에서는 철도여행과 레일바이킹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계곡과 물길이 있는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1시간 20분 코스 여행을 떠나보자.”

감이 든다. 여기저기에서 짙막한 비명이 들려오고 두려움 섞인 미소가 깃든 얼굴들도 볼 수 있다.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출렁다리 중간쯤에서 아래로 눈길을 돌리자 비경이 펼쳐진다. 푸른 물줄기를 따라 하얀 모래톱이 이어지고, 조그만 다리들은 물길을 가로지른다. 선경이 따로 없다. 이것이 바로 소금산 출렁다리의 하이라이트였다.

맞은편 끝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온다. 이곳도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가득하다. 어떤 이들은 다리로 되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오른쪽 흠길을 따라 하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소금산 정상을 향한다. 소금산 정상을 찍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면 2시간 정도 더 걸린다.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 한쪽에 설치된 길이 12m의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섰다. 철재 바닥이 흰하게 뿔려 있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출렁다리보다 더 아찔하다. 아래로는 계곡을 따라 물길이 휘도는 맑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고공에서 짜릿한 기분을 맛보고 내려가는 길, 여기저기 나뭇구렁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과자 봉지, 비닐, 종이 찌가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원주시는 2020년까지 간현관광지를 스릴 만점의 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장에서 출렁다리까지 길이 700m의 곤돌라를 놓고, 소금산에

서 간현산으로 가는 250m 구간에는 투명한 유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출렁다리부터 소금산 정상까지 하늘정원 수목원길이 조성되고, 고도 200m의 소라계단과 잔도(棧道)도 생긴다. 출렁다리는 올해 7월 1일부터 유료화(1인당 3천원, 7세 이하 무료)된다.

소금산 비경 선사하는 풍경열차

간현관광지 인근에는 원주레일파크가 있다. 이곳에는 풍경열차로 철도여행을 한 뒤 돌아올 때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일석이조 코스가 마련돼 있다.

풍경열차는 간현역에서 출발해 판대역까지 7.8km 구간을 달린다. 빨강과 흰색으로 칠해진 열차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천장에 천을 씌웠고,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측면을 개방했다. 공무년에 레일바이크 수십 대를 매단 열차는 느린 속도로 섬강을 건너고 소금산 아래를 통과하며 비경을 선사한다.

판대역에서는 같은 구간을 레일바이크로 돌아온다. 완만한 경사가 이어져 힘들이지 않아도 잘 나아간다. 구간 곳곳에는 총 6개의 이벤트 타널이 있다. 레이저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터널, 목청 높여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고타터널, 사랑을 고백하는 터널 등이 조성됐다.

홍은성 원주레일파크 팀장은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통한 후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인원도 이전보다 10배 정도 증가했다"며 "소금산 출렁다리를 방문한 후 이곳에서 레일바이크를 타면 간현관광지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일바이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40분 간격으로 하루 5~6회 운행한다.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체험 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요금은 2인승 3만8천원, 4인승 4만8천원. ▼



4

INFORMATION

풍광이 수려한 산이나 강 등에 독특한 지형을 활용해 만들어 놓은 출렁다리,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고공 시설물들이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여행지를 또 다른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전국의 주요 고공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출렁다리



① 파주 마장호수 흔들다리

길이 220m, 폭 1.5m의 흔들다리로 올 3월 개통했다. 보도용 현수교로는 국내 최장이다. 몸무게 70kg 성인 1천280명이 한꺼번에 지날 수 있으며, 초속 30m의 강풍도 견딘다. 진도 7 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됐다. 마장호수 일원은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호수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높이 15m 전망대와 조망 덩 2곳이 마련됐고, 호수 둘레 3.3km 구간에 산책로가 설치됐다. 호수에서는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다.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



②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감악산(675m)은 개성 송악산(705m), 포천 운악산(936m), 가평 화악산(1,468m), 서울 관악산(629m)과 함께 경기 5악(五岳)으로 불린다. 감악산 등산로를 따라 10분을 걸으면 2016년 개장한 길이 150m, 폭 1.5m의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지상까지 거리는 45m. 양쪽 계곡을 연결한 현수교 형태로 다리 양쪽 끝 언덕 위에는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감악전망대와 운계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③ 여수 하화도 꽃섬다리

하화도(下花島)는 여수 화정면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는 섬이다. 임진왜란 때 피란하던 인동장씨 가족이 동백꽃, 선모초, 진달래꽃이 핀 이곳에 정착하면서 꽃섬이라 불리게 됐다. 하화도 서쪽에는 길이 100m의 꽃섬다리가 놓여 있다. 해수면에서 65m 높이에 설치돼 다리에서 보면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바다가 발아래 펼쳐진다.



④ 통영 연대도-만지도 출렁다리

만지도와 연대도는 통영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두 섬을 잇는 길이 98m, 폭 2m의 다리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품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산양읍 연명항에서 배를 타면 섬에 닿을 수 있다.



⑤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

길이 207m, 폭 1.5m, 높이 24m의 다리다. 다리에는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과 고추를 형상화한 높이 16m의 주탑이 서 있다. 상하좌우로 30~40cm 정도 흔들리게 설계돼 있다. 다리를 건너면 칠갑산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이어진다.

케이블카



사천 바다케이블카

동서동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연장 2.43km 구간에 설치된 국내 최장 케이블카이다. 초양정류장에서 대방정류장까지 1천221m가 해상부이고, 대방정류장에서 각산정류장까지 1천201m는 육상부다. 이 중 바다를 지나는 구간은 816m이다. 10인승 캐빈 45대(크리스털 캐빈 15대)가 시간당 최대 1천3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20~25분이다. 왕복 기준 탑승요금은 일반 캐빈 어른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이다. 크리스털 캐빈은 어른 2만원, 어린이 1만7천원. ☎ 02-2202-3435



삼척 해상케이블카

삼척의 아름다운 용화해변과 장호해변의 에메랄드빛 앞바다와 기암을 감상할 수 있다. 길이 874m, 고저차 21m의 구간을 정원 32명의 캐빈 2대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약 10분간 운행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수기(11월 1일~3월 31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기휴일은 매월 18일. 왕복요금은 대인 1만원, 소인 6천원. ☎ 033-570-4606



통영케이블카

8인승 캐빈 48대가 1천975m를 약 10분 만에 미륵산 정상까지 잇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며 아름다운 통영 앞바다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상부 역사 인근에는 주변 풍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미륵산 정상까지도 걸어서 10분이면 닿는다.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왕복요금은 대인 1만1천원, 소인 7만원. ☎ 1544-3300



발왕산 관광 곤돌라

발왕산 정상은 해발 1천458m이지만 정상 바로 아래까지 8인승 캐빈 100대가 운행한다. 정상인 드래곤피크에 가면 대관령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 정상에 있는 하늘정원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이 '백 허그'를 한 장소로 연인들이 즐겨 찾는다. 왕복 길이는 약 7.4km로 편도 기준 18분 걸린다. 매주 월요일 휴정하며 왕복요금은 어른 1만5천원, 어린이 1만1천원. ☎ 033-330-7423

스카이워크



소양강 스카이워크

강원도 춘천 소양2교와 소양강 체녀상 옆에 있다. 총 길이 174m 중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된 구간이 156m다. 스카이워크 끝에는 원형 광장이 있고, 광장 양쪽에 전망대가 설치됐다. 조망대에 서면 쏘가리상이 바로 내려다보인다. 일몰 후에는 오색 조명등이 켜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바로 앞에는 테이블이 마련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 ☎ 033-240-1695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남한강 절벽 위에 들어선 높이 25m의 만학천봉 전망대 꼭대기에서는 80~90m 아래에 있는 남한강 수면을 내려다보고, 소백산 지류를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바깥으로 15m 길이로 돌출한 하늘길은 바닥이 투명해 아찔한 스릴을 선사한다. 인근에는 만학천봉~환승장(680m), 환승장~주차장(300m)을 잇는 짚와이어가 있다. 성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500원. ☎ 043-421-0014~5



병방치 스카이워크

강원도 정선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돌출한 길이 11m의 U자형 구조물이다. 투명 유리 아래로 높이 200m의 절벽이 보이고, 전망대 바깥쪽으로는 동강과 한반도를 닮은 밤섬을 조망할 수 있다. 바로 위에는 짚와이어 탑승장이 있다. 착륙장인 동강 생태체험 학습장까지 표고차가 325.5m, 길이는 1.2km다.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이고, 짚와이어 이용료는 4만원. ☎ 033-563-4100



재인폭포 스카이워크

재인폭포는 한탄·임진강 지질명소 중 최고로 꼽힌다. 약 18m 높이에 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과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높이 27m 지점에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워크가 조성돼 아찔한 폭포와 주변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다.